



申志鎬

자유주의연대 대표 / 서강대 겸임교수

## 도넛 정부와 동그랑땡 정부

경찰대 입시에서 낙방한 수험생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고 해서 화제다. 일견 서열과괴라는 긍정적 현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병적 요소가 드리워져 있다. 이른바 ‘공시족(公試族·공무원시험준비생) 형상이다. 지금 대학가에는 공시족 열풍이 한창이다.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공복(公僕)이 되겠다는데 마다할 일이 있겠는가. 마는 그 열기가 ‘삼팔선’·‘사오정’의 시대에 공무원(초·중·고교사와 공기업 직원도 이 범주에 든다)만 한 ‘철밥통’이 없다는 사회적 인식의 산물이라는 대목에서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이는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 향

상이라는 관점에서 암울한 현상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일류(一流)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젊은이들이 ‘애늬은이’가 되어 ‘철밥통’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어찌 그 나라의 미래가 밝다하겠는가. 혹자는 극심한 청년실업, IMF환란(煥亂) 이후의 격렬한 구조조정이 젊은이들을 안정지향형으로 만들었다고 변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정부혁신의 지체, 시대착오적인 공공부문의 확대야말로 공시족병(病)의 항원(抗原)이라고 생각한다.

〈주장1〉 기업이 못 하겠다고 하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든, 국민에게 세금을 받은, 돈을 빌리든, 어떻게든 해서 미래성장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주장2〉 장사는 장사꾼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 이상의 산업회는 기업 등 민강영역에서 인도해야 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시킨다.

〈주장1〉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고, 〈주장2〉는 황우석 박사의 말이다. 늘 자기 확신에 차 있는 대통령 덕에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빠른 속도로 늘고, 그와 비례하여 공무원 숫자도 늘고 있다. 어느 공사에서는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대(代)물림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시족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니겠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부문의 철밥통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태가 이러하다 보니 '작은 정부 대(對) 큰 정부' 논란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얼마전 노무현·박근혜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런데 '작은 정부 대 큰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용어는 아니다. 나는 현 정부가 단순한 큰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자송환 노력 등 국가의 제1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데서 나타나듯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강행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덩치만 큰 채 가운데가 뺨 뚫려 있는 '더넛 정부' 라고 할 것이다.

이 '도넛 정부'에 대비되는 개념은 '동그랑땡 정부'다. 비록 덩치는 작지만 치안·국방·법집행 등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야무지게 챙기면서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을 최대한 보장해서 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정부, 공공부문의 낭비를 줄여 세금을 돌려주는 알뜰정부가 자유주의자들의 이상형인 '동그랑땡 정부'다.

옛 나라 일본에서 '헨진(變人·괴짜)' 고이즈미가 대박을 터뜨렸다. 노 대통령의 부러움은 도를 더할 전망이다. 그런데 정작 노 대통령이 참고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 자민당의 압승은 우정(郵政) 산업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만들기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대대적 지지의 결과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공공사업의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정책 실패를 뒤따라가고 있다. 게다가 한술 더 떠 연정, 선거구제 개편, 개헌 등 민생과 동떨어

진 정치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깨어있다. 차기 정권의 향배는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쟁투(爭鬪)가 아니라 세금을 돌려주느냐 더 걷느냐, 현재의 도넛 정부냐 다이어트에 성공한 동그랑땡 정부냐에 의해 갈릴 것이다.

